

제1회

우리 동네 개선해야할 조경 사진 공모전

# 동네 조경가를 찾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사)한국조경학회와 (사)한국조경사회의 주최로 [제1회 우리 동네 개선해야할 조경 사진 공모전 - 동네조경가를 찾습니다]에 제출신청을 받았다. 수상작은 대상 1인, 금상 1인, 은상 2인, 동상 3인, 장려상 5인으로 총 12작품이 선정되었으며, 그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 2009년 제1회 ‘동네조경가’ 심사결과

분 류	성 명	직 업	내 용
대상	박호광	회사원	
금상	박태원	대 학생	좁은길에서 큰 생각하기
은상	이승철	대 학생	삼릉공원과 도심의 융합
은상	정윤철		도심 속 우리문화
동상	이희경	대 학생	<b>Taking Easy Steps</b>
동상	김 룡	예술인	한성백제의 풍납토성, 이대로 좋은가..
동상	김경택	대 학생	갈림목의 장애물
장려상	최은원	대 학생	우리들의 일그러진 마음
장려상	전용구	회사원	<b>Green Effect</b>
장려상	이현동	대 학생	분수정원, 새로운 만남의 광장
장려상	이종혁	대 학생	너울가지
장려상	지예나	대 학생	洗(세)心(심)停(정)

## 응모동기

---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많은 재정과 행정적 지원 없이도 우리의 삶과 시각을 스스로 즐겁고 유쾌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환경을 개조하고 변화시키는 조경이라는 것이 멀리 있을까? 그리고 반드시 많은 경제적 지원과 시간, 노력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은 일상생활 속에서 강변의 수목에 유쾌하게 그려놓은 화분 그림을 보면서 풀리게 되었다. 재미와 위트를 주는 이 강변 그림들은 간단한 아이디어와 적은 재정, 시간과 노력만으로도 도심속 건조한 우리의 생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 좁은 길에서 큰 생각하기

### 응모동기

어떤 책에선가 '도시인으로 사는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도심지에 숨어 있는 나만의 공간을 찾아 머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함과 민첩함을 요하는 도심에서의 생활을 잠시 뒤로 할 수 있는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밖의 길이 보이고, 곳곳에 아이러니한 풍경과 낮은 건물들이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골목길의 단점은 저녁시간이 되면 어두운 분위기와 무서움이 엄습하여 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날은 달려가게 됩니다.

어느 날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근처의 회기동 골목길을 걷다가 화분들이 유난히 많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곳에서 골목길을 걸으며 칙칙함과 무서움보다는 좀 더 푸르러서 숲속을 걷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벽화를 통해 골목길을 살리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화분이 많이 있는 회기동 골목길에 접목시켜 기존의 화분뿐만 아니라 골목길을 채우는 벽들에 나무를 그리고, 숲 같은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벽화로 채우는 것입니다. 도심 속에서 휴식처로 혹은 추억을 리폼한,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강원대 춘천시에 있는 한 번기화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아날로그적이기 때문에 정감있고, 때론 음침함을 주는 공간을 벽화나 생활용품 재사용을 통한 화분 등으로 채워나가면서 골목길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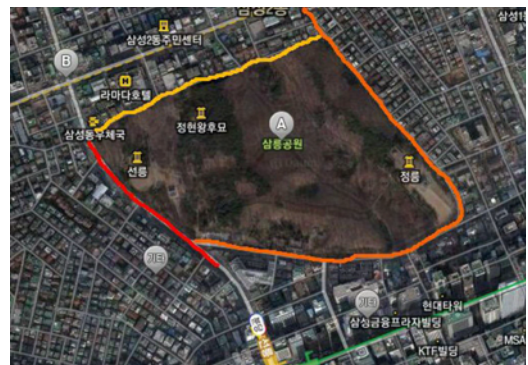
## 삼릉공원과 도심의 융합

### 응모동기

이 공모전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한 대학생 잡지책을 통해서였다. 현재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로서는 평소에 토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환경, 도시, 조경이라는 학문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반인 및 학생으로서 조경에 대해 좀 더 많이 알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이 시대에 책에서만 환경을 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환경부터 살펴보는 작지만 실천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네의 조경을 살펴봄으로서 조경의 대중화와 인식제고를 꾀하는 이번 공모전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녹색 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더 이상 자연을 인간이 사는 곳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사고는 옳지 못하다. 요즘 아파트 광고만 보더라도 친환경을 지향하고 단지내에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음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우리 동네의 명소인 삼릉공원(선정릉)의 주변 조경에 대해 조사하면서 강남의 새로운 문화·생태 거리 조성의 가능성을 보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녹색이라는 화두에 맞게 개선할 사항에 대해 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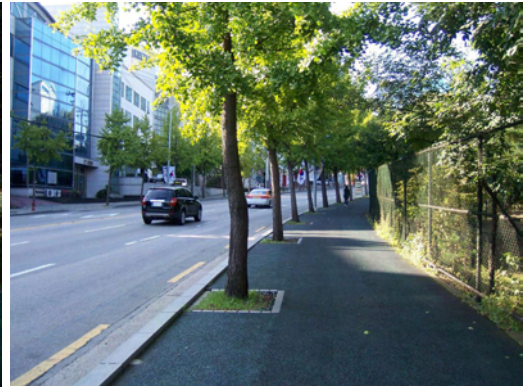
### 삼릉공원에 대한 제안

나는 삼성동에서 20여년동안 거주해 온 주민으로서 얼마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선릉·정릉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어려서부터 삼릉공원-선정릉이란 말보다 더 일상적으로 쓴다-으로 학교 소풍이나 가족나들이 및 운동코스로 자주 다녔기 때문에 내게는 매우 익숙하며 친근한 곳이다. 삼릉공원이 여느 다른 공원과 다른 점은 그야말로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쪽에는 테헤란로가 뻗어 있고 주변에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과 앞으로 9호선 역이 삼릉공원 사거리와 차관아파트 사거리에 생길 예정이다. 이렇게 삼릉공원 주변으로 주거및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은 물론 직장인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옆 지도의 공원 주변의 색테두리는 통행량을 나타낸 것이다. 색깔이 진할수록 통행량이 많다.





아래 사진은 공원 주변을 따라 촬영한 경관이다.





삼릉공원은 도시속의 자연이 아닌 자연속의 도시를 실현해 볼 수 있는 좋은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자연과 도심의 경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 저 부자연스러운 철조망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다. 낡고 녹슨 철조망은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 듯 하여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올 수 없다. 그나마 쳐져 있는 펜스들도 높이와 재질이 일관적이지 못한다.

◎ **현황**

현재 삼릉공원 주변을 두르고 있는 일부 펜스는 낡고 녹슬었으며 죽은 식물들로 덮여 있기도 하다. 또한 높낮이도 들쭉날쭉이며 낡은 것과 새것이 혼재되어 있어 일관적이지 못하다. 개선한다면 울창한 숲과 도시의 미관을 한층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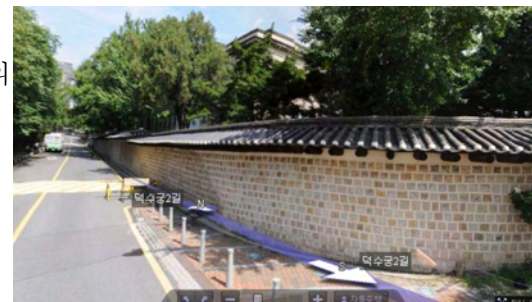
◎ **개선안 1**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담장이었다. 원래는 벽돌로 보이는 부분이 페인트칠한 콘크리트였고 나무 울타리 부분은 알루미늄 난간이어서 그렇게 보기에 좋지는 않았다. 만약 삼릉공원 주위를 이런식으로 두르게 된다면 크게 단절감을 주지 않으면서 단정한 느낌을 줄 것이다. 하지만 재공사를 한 뒤 그 자체만으로도 보기 좋은 구조물이 되었다. 만약 삼릉공원 주위를 이런 식으로 두르게 된다면 크게 단절감을 주지 않으면서 단정한 느낌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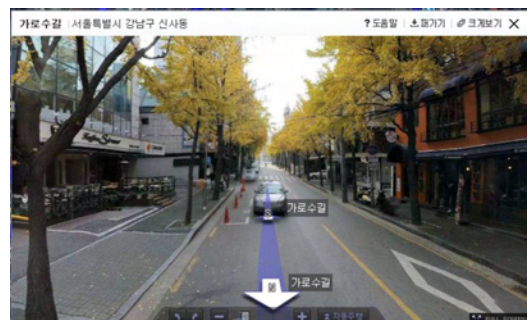
◎ **개선안 2**

여기는 종로의 덕수궁길로 전통적인 느낌의 사람 키를 넘는 기와 담벼락을 사용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외부 단절을 하지만 크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다. 삼릉공원에 적용한다면 왕릉 이미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단 담장의 키를 사람 키를 넘지 않도록 하여 울창한 숲의 경치를 보는데 막힘이 없어야겠다.



◎ **제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역사가 늘어남에 따라 삼릉공원의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잘 가꾸고 활용한다면 문화유산, 생태, 도심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문화거리와 랜드마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도심 속 우리문화

### 응모동기

먼저 사진의 장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복천동 고분군을 마안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동래구는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라는 슬로건처럼 유수의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도시입니다. 복천동 고분군 역시 1969년부터 1994년에 발굴된 삼국시대의 대표적 분묘로서 지역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응모한 이유는 고분군과 고분군 주위에 저 멀리 보이는 고층아파트와 빌딩, 뻣뻣한 주택가의 대비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고분군과 현대의 상징이 되어버린 고층아파트와 빌딩의 구분선과 경계를 확연히 지어놓은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더욱 잘 알고 있기에 도시 속 문화재 보존은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조경, 사람과 자연을 조화롭게 하는 조경, 그리고 조경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TAKING EASY STEPS

### 응모동기

조경요소는 그 주위의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태와 정서에도 관여합니다. 요소들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행태와 그 공간에 갖는 기억들이 달라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이공계 캠퍼스 내에 조경요소를 바꾸면 활성화 될 것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저의 제안을 응모하였습니다.

#### ◎ Short Cut & Taking Time

Before



**위치:** 고려대학교 이공계 캠퍼스 창의관과 공학관 사이를 잇는 길

**상황:** 창의관은 사진 상에 나타나있지 않지만 사진 왼쪽 아래에 위치하는 건물이고 공학관은 왼쪽 위로 보이는 건물이다. 이 두건물은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가깝다.

**문제점:** 가까운 두 건물 사이에서 오가기 쉽지 않다. 보이는 것과 같이 경사가 가파른 길이나 구불구불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After



**전략:** 경사로에 집중했다. 전혀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는 조경요소에 필요요소를 덧대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해결방안:** 원래 놓여 있는 석재에 나무를 덧대어 머무를 수 있는 판을 만들고 벤치를 놓는다. 또한 공학관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마련하여 이곳이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앉아있거나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그들을 위한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 나무를 심어 아늑한 공간을 제공한다.



## 한성백제의 풍납토성, 이대로 좋은가..

### 응모동기

저는 우리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의 부실한 관리 실태와 특히 주변 환경 개선의 여지가 많은 서울 풍납동에 있는 풍납토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틈나는 대로 서울에 산재한 유적지를 찾아 사진으로 담아보곤 합니다. 근래 들어서 삼국시대 백제의 유적지를 자주 찾았었습니다. 잠실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몽촌토성, 그리고 석촌동에 있는 석촌동 고분은 이미 제가 다녀간 곳인데 공원형식을 빌어 인근 주민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문화 유적지를 잘 조성해놓았더군요. 물론 이제 말씀 드리고자 하는 풍납토성도 공원형식을 띠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 이렇게 올려봅니다.

### 풍납토성의 역사

먼저 풍납토성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한성백제에 대하여 잠깐 알고 넘어가야겠기에 설명해 올리자면 한성백제는 백제가 건국된 때부터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 즉 하남위례성에 수도를 두고 있었던 500년간(BC18 ~ AD475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침략하여 도읍지인 위례성을 불태우고 개로왕을 살해하게 되고 백제는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천도를 단행하게 되는데 '한성백제'란 475년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 하남위례성을 수도로 하던 시기, 즉 BC18 ~ AD475년의 백제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백제가 수도를 지금의 공주로 옮겼을 때를 '웅진시대', 이후 부여를 수도로 했을 때를 '사비시대'라 하지요.

700년에 가까운 백제의 역사 중 공주와 부여에 도읍을 정했던 시기는 185여 년입니다. 나머지 500여 년 동안 한성을 도읍 삼은 백제초기 즉 '한성백제'는 지금까지 관심을 끌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에는 백제가 BC18년에 건국됐으며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강력한 절대왕권을 갖춘 국가로 기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한국 고대사학자들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 기록은 허구라고 비판하면서 대체로 3세기 중반 고이왕 이후부터 역사기록으로 인정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판축토성인 '풍납토성'이 한성백제의 수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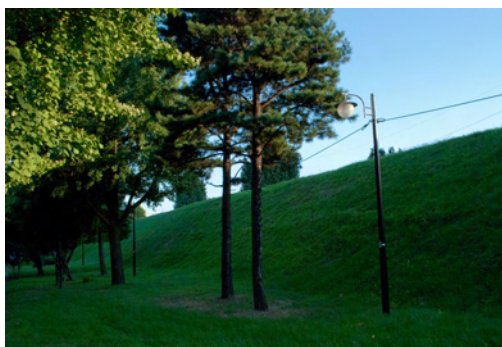
하남위례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성백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부각되었습니다. 현재 한성백제의 수도가 풍납토성인지, 기존에 하남위례성으로 알려졌던 몽촌토성인지 여부와 당시 한성백제의 발달수준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풍납토성은 한강에 붙어 있어 북쪽에서 강을 건너 내려오는 적을 막기에는 몽촌토성보다 불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한편 풍납토성을 왕성으로 보는 학자들은 몽촌토성에 비해 풍납토성의 규모가 훨씬 크고 또 평지에 인공적으로 성벽을 쌓아 올린 성이라서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갔으리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왕과 같은 최고 지배층이 머무는 곳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공을 들여 큰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으리라는 주장이죠. 더욱이 최근의 발굴 조사 결과 성안 쪽에서 기와 건물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왓장이 많이 발견된 점도 풍납토성이 왕성일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제시대의 집은 대부분 초가집이고 왕국을 비롯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물들만 기와집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납토성에서 나온 유물들이 몽촌토성에서 나온 것들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도 그냥 지나지기 어려운 점이구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풍납토성을 백제 초기 왕성으로 보는 추세이지만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풍납토성도 그렇지만 몽촌토성도 극히 일부만 발굴 조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더 넓은 범위를 발굴한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죠.

## 풍납토성의 관리실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풍납토성의 관리 실태를 사진으로 보실까요?

천호대교 방면 풍납토성입니다(아래 왼쪽 그림). 유적지 내에 가로등과 전선이 보입니다. 가로등도 토성에 너무 근접해 있군요. 그리고 가로등 위로 지나가는 전선은 토성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유적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야하는 건 아닌지요(아래 오른쪽 그림)? 도심 잘라버리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분명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쳐 놓았음에도 문화유적과는 상관없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까요?



그 뿐만 아니라 풍납토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안내판을 보려면 주차된 자동차 사이를 들어가야 합니다.



토성 주변이 거의 주차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좌측 사진은 뺑뺑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로가 아예 막혀 버렸습니다.  
우측 사진은 토성이 주저앉았음에도 비닐포만 덮어 놓았을 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결론

---

정말 이곳이 기존 백제의 역사를 뒤바꾼 유적지인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풍납토성의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 상태로는 무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이렇게 두서 없이 올려봅니다.



## 갈림목의 장애물

### 응모동기

해당 공모전을 접하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조경이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직접 조사를 하다보니, 우리 동네 조경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어 응모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생활 주변의 조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이 장차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여러 시설물 사용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 우리 동네 개선해야 할 조경 사진 #1

#### ◎ 현황



책상과 의자라 부르기에는 너무 처참한 상태





도로변에 나와 있는 생활일간지함



더군다나 이 곳은 길이 갈라지는 갈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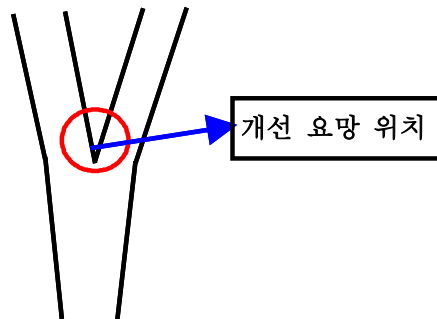


교통사고의 위험요소이며 미관상 좋지 않아 보인다.

덧붙여 설명하면, 위 사진은 우리 동네로 좌측으로 나가면 세무서, 국토관리청,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있으며, 우측으로 나가면 5일장으로 열리는 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도 많은 차량과 행인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위와 같은 상태여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개선안

불필요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책상과 의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는 낮고 작은 화단을 만들어 조경을 꾸민다. 생활일간지함의 위치를 도로변이 아닌 곳으로 위치시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인다.





## 우리 동네 개선해야 할 조경 사진 #2

### ◎ 현황



두 개의 전봇대를 걸쳐 위태롭게 쌓여진 담



도로변까지 흘러내리는 부서진 돌

위 사진은 동네 근처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텃밭과 도로의 경계선이다. 담장은 튼튼해 보였지만, 돌의 크기가 다양하고 불규칙하게 쌓아올려진 벽돌이 보기에 좋지 않았고, 더군다나 두 개의 전봇대를 사이에 두고 저렇게 담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개선안

기존의 담을 허물고 전봇대의 안쪽으로 완전한 시멘트 벽돌을 이용하여 담을 새로 쌓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